



12면

고창 반암리, 초기청자 생산 메카 확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음 6월 21일) 제306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함께 혁신 · 성공, 새로운 전북'

## 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전북도정 운영방향 발표

도의회 임시회서 기업유치 · 일자리 창출 등 해법 제시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전략 등 갖춰 도정 추구"  
의회 제출된 1조2212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일 제303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8기 도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며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전북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려내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개척한다"는 도민의 열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춘 도의원들과 함께 해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능성의 땅, 전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전환의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전의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우리는 기민하고, 역동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며, 새로운 전략,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시도를 추구해야 한다"며 "민선8기 전북도정은 '민생', '혁신', '실용'이라는 핵심원칙을 가지고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담대한 전략,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갖춰 역동적인 도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선8기 전북발전의 비전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으로 정한 것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도민 모두가 혁신과 도전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함께 혁신, 지역 또는 세대간 소득의 양극화를 극복해 실제 도민의 삶에서 결실을 거두는 함께 성공, 전북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전북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거점조성',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로 20대 핵심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전북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그 꿈을 위해 저부터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전북원팀의 힘을 결속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기회의 땅, 전북 그 설레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우리 전북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이다"며 자신의 뜻을 강조했다.

이어 도의원들에게 "의원들의 뜻과 열정으로 준비한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의 대전환, 전북의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도의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 설명 이후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된 1조221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전북도는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정 비상 대책을 최우선으로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안전, 새만금과 지방소멸대응 등 분야별로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전북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이 증가(13.4%)한 10조3,21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12.8%↑), 특별회계 969억원(1.0%↑), 기금 2,598억원(39.1%↑)이 각각 증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생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좋다는 신념 하에, 민선8기 전라북도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을 받들어 우리 도민의 삶과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12대 도의회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김관영 도지사(사진 아래쪽)가 민선8기 비전과 5대 도정목표 20대 핵심전략 등 도정 운영방향 설명하고 있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도민께 지혜를 구합니다'

전북연구원, 민선8기 도정 목표 달성 위해

'열린 연구, 좋은 연구' 도민 공모 실시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라북도민의 지혜를 모은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도민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제10회 '열린 연구, 좋은 연구'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을 모토로 도민이 연구과제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모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기업유치, 민생경제, 농생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참여마당-도민공모 게시판을 연

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8월 12일까지 이메일(idea@thinkkr)로 접수할 수 있다.

권혁남 원장은 "새로운 민선8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응모된 모든 연구과제는 창의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심사결과는 8월 중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심사결과 우수 연구과제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시상되며,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063-280-714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 전주한옥마을 테마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도, 과기부 공모 선정... 전북 · 서울 · 경북 연계

전북(도지사 김관영)과 전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에 걸쳐 국비 15억3,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메타버스 도시 분야의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으로 지역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위한 헤리티지 투어리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한옥마을을 테마로 전북·서울·경북을 연계해 주요 관광명소를 통합해 가상세계 속에서 관광·쇼핑 등이 가능한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서울·경북 등 3개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정됐다.

전북 사업은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하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울포랜드, 모아지오, 나인이즈, 뱅코,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연차별로는 2022년도에는 전주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을 기반으로 주요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는 전주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와 현장 사용자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와 현장 사용자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상·증강현실세계의 사용자간 연동 서비스를 구현한다. /김경수 기자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낮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